

“필수 업종 노동자 존엄 지켜져야”

보건 의료·돌봄·배달업 종사자 등 영암군, 보호조례 제정...전남 최초로 근로조건개선 등 생존권 보장 담야

영암군이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발생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업종 종사자들을 보호·지원하는 조례를 전남 지자체 최초로 제정했다. 23일 영암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전날 제 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정의당 김기천 의원(군서·서호·학산·미암면)이 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는 코로나19 등 긴급재난이 발생할 경우 역할은 강조되지만 근로환경과 처우 등은 열악한 필

수노동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필수노동자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국민의 안전과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이면에는 고위험의 대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자리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보건 의료와 돌봄, 배달업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필수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실업 등 고용 불안과 감염의 공포, 열악한 작업환경 등에 노출돼 있다. 조례는 필수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등 필수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업 등을 실행할 수 있는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김기천 영암군의회원은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일상의 필수 부분을 책임지는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필수노동자들을 감염과 과로, 실업, 산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 자발적인 처우개선을 유도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완도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원도심 활기 찾는다

2024년까지 사업비 134억 투입 올해 27억 들여 중앙시장 활성화 한다. 완도군이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 완도읍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23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완도 중앙·주도·서성·용암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오는 2024년까지 투입되는 총 사업비만 134억원에 달

한다. 완도군은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소득 창출과 주거 지역 집수리, 스마트 생활공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복어울림센터, 역사쉼터 조성 사업 등도 진행한다. 완도군은 올해 27억원을 사업비를 들여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과 집수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중앙시장 일부를 공공 매입해 리모델링하고 완도

읍 중앙·주도·서성·용암리 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정비와 빈집 철거 등이 주요 사업이다. 완도군은 29가구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각 가구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집수리 지원 사업은 거주민들이 직접 주거 환경 개선을 체험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체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군, 전국 최초 다자녀가정 공공요금 원스톱 감면 서비스

해남군은 해남으로 전입하는 다자녀가정에 공공요금 원스톱 감면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는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며, 이달부터 읍·면 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하면서 요금감면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공공요금 감면 원스톱 서비스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와 한국전력공사 해남지사, ㈜해양에너지와 함께 시행한다. 2자녀를 가진 가정은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정은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해당 기관을 각각 방문해 요금감면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 해



해남군은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정 공공요금 원스톱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열린 해남군 비대면 아이사랑 유모차 축제. 소는 물론 감면제도를 사전에 알지 못해 감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2자녀를 가진 가정은 상수도요금 최대 5300원, 하수도요금 1600원을 감면받는다. 3자녀 이상 가정은 상하수도요금 감면과 함께 전기요금 1만6000원 정액 적용한다. 도시가스요

금은 4~11월 1650원, 12~3월 6000원을 감면받는다. 해남군 관계자는 “공공요금 감면 오프라인 원스톱 서비스가 다자녀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자녀가정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아이 낳고 아이 기르기가 좋은 해남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나눔 세상 온정의 손길

신안군수협, 신안군장학재단에 3000만원 기탁

신안군수협은 최근 신안군청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3000만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사진> 김길동 신안군수협 조합장은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 육성사업에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수협은 신안군장학재단에 2017년도 1억3000만원을 후원했다. 부터 장학기금을 기탁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주)신호엔지니어링, 영광군에 마스크 3만장 기부

(주)신호엔지니어링은 최근 영광군을 방문해 코로나19에 취약한 주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KF94 마스크 3만장(10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 <사진> 영광군은 기부된 마스크를 코로나19에 취약한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할 계획이다. 신호엔지니어링은 영광군에서 에너지 자립을 위해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이다. 든 상황이지만 서로 도와 자치단 따뜻한 온기가 전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광=이종훈 기자 jylee@kwangju.co.kr



세일글

“목포항, 국내 3대 항 명성 되찾을 것”

김성수 목포해양수산청장



“목포항 국가계획을 적극 추진해 국내 3대 항, 6대 도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2일 취임한 김성수(55) 제29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지난 1월 고시된 국가계획(제3차 항만개발계획,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목포항의 국제여객부두 및 자동차부두 추가 확충, 수변공원 조성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이 재정사업으로 반영됐다”며 “목포항의 3대 항만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완도출생인 김성수 청장은 목포고와 목포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수산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실·창조행정담당관실에서 근무했으며, 전남도 수산유통기공과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을 역임한 해양수산 전문가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